

전북도, 실감콘텐츠 산업 선도 탄력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모 선정... 전국 유일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전북도가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0억)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되는 개발지원센터는 원광대학교 내 기존 건물물 재단장해 3층 규모, 연면적 2,113㎡로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XR 소재·부품·완제품 테스트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과 기술 개발실, 회의실과 기업의 입주공간 등이 마련된다.

특히, 1층 카페테리아(cafeteria)는 실감 콘텐츠(contents) 시제품을 비치해 학생과 일반인 등이 직접 XR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으로 실감 콘텐츠 분야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내

다봤다.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미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분야다.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XR분야에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센터가 도내에 구축되면서 향후, 전북도가 실감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기업 간 수요-공급 비즈니스 매칭, XR관련 시장동향, 기술정보 제공, 완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소재·부품·장비 품목 테스트지원 및 사업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새만금에 구축될 예정인 VR/AR 테마파크 및 스마트융합멀티플렉스 등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참여한 연합체(consortium)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센터운영 총괄 및 비즈니스매칭,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원광대학교는 센터 공간제공, 테스트장비 지원, 포럼 및 기술교류회 운영, ▲한국화학연구원은 XR소재·부품 성능평가 및 컨설팅 지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기업 액세서리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완성을 위해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광대와 공동 사업기획을 통하여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사업으로 제안했

다. 도는 지난해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사업을 2021년 중점 국가예산 사업으로 낙점하고,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익산 발전을 위한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해 기재부 예산 반영과 과기부 공모선정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전병수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홀로그램, AR, VR 등 실감콘텐츠 기업의 소재에서 콘텐츠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전북이 홀로그램 뿐 아니라 AR, VR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촉구

전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결의안 채택 송지사 "채택 환영... 반부패·청렴 정책 지속 논의"

'전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부문 8개 기관과 국제라이온스협회전북(356-C)지구 등 민간부문 10개 법인·단체로 구성된 '전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에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 국회는 정부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며, 셋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해 차질 없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를 촉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전북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2022년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북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으로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경관작물인 구절초, 국화류 등과 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작물,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준경관초지가 대상이다.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준경관초지는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마을에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활동 등의 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 경관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금은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전년도 도·농 교류 연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역축제·체험관광·도농 교류와 연계 가능한 농지로 경관작물은 2ha,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를 조성해야 하며,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임용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수처 임용식에 참석해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전북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 '최우수'

전북도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8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광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노력, 생산분야, 유통분야 3개 항목 6개 지표에 대한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했다.

도는 생산자 조직 육성, 통합마케팅 확대 등의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함으로써 전국 10개 시·도 중 최고점(102.82)으로 1위를 차지하며, 농산물

마케팅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시·군 분야에서는 100개 단체 중 무주군 1위, 전주시가 2위를 차지했으며, 농업법인으로 이뤄진 품목광역조직 분야에서는 8개 조직 중 부안마케팅이 1위, 김제 소재의 (주)농산이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16개 조직 모두 A등급(5개 등급)에 선정되며, 2022년 농산물유통 관련 국비사업 우선 선정 자격과 산지 유통활성화자금 기금배정액 외 48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유호상 기자

장기임대용지 입주수요 증가

도, 새만금산단 내 6만2000평 매입으로 총 49만5000평 확보 낮은 임대료로 투자유치 활성화·내부개발 마중물 역할 톡톡

전북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만금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매입해 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청, 군산시와 함께 올해 사업예산 210억원(국비 168, 지방비 42)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새만금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6만2,000평(21만㎡)을 매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9만5,000평(164만㎡)의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한 전북도는 목표량인 60만 5,000평(200만㎡)에 점점 다가갔다.

도는 내년에 11만평(36만㎡)의 임대용지를 추가로 매입해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확보한 '장기임대용지'는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한다.

이는 초기투자 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들에 큰 매력으로 작용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투

자유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새만금산단 투자협약 총 10건 중 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은 9건에 달해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내부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대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9건은 10만평(33만㎡)의 면적에 투자액 1,972억원 규모로, 현재 공사완료(세미) 및 공사 중(주상산업)인 기업이 2곳, 입주계약 체결 예정(비전세입 등)인 기업이 3곳이며, 플라스포, 와이에이치에너지 등 4개 기업은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운동목 새만금해양수산공장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 속도감 있는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확보된 임대용지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들의 입주계약과 착공이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